

종합·해설

“정권교체 힘을” “일당독점 해소”

민주·비민주 지도부 총출동 서구청장 재선 지원 총력

무소속 “중앙당 과도한 개입 지역민 무시 처사” 비판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를 사흘 앞둔 일요일인 24일 민주당과 비민주 야 4당 지도부는 광주에 결집해 휴일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과 비민주 야 4당은 민주당 김선옥 후보와 비민주 야 4당 단일후보인 국민참여당 서대석 후보, 무소속 김종식 후보 간 막판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도부를 총출동시켜 자당 소속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를 강화했다.

무소속 김종식 후보는 중앙당의 과도한 개입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천정배 최고위원, 양승조 의원 등은 24일 서구 일대에서 유세를 갖고 “김선옥 후보는 깨끗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이라며 “김 후보를 구청장으로 만들어주면 서구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민주당에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한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손 대표는 이날 새벽부터 이낙연 사무총장과 장병완·김영진·김재균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구 치광동 무각사 산책로에 나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했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변화의 바람을 광주·전남에서 불어넣어 주신 뒤 맞는 첫 선거”라며 “부

족한 것이 많지만 열심히 하겠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박지연 원내대표와 정세균, 이인영 최고위원, 김영진, 조영택 의원 등은 지난 23일 서구 일대에서 “김선옥 후보는 민주당의 소중한 여성정지인”이라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

비민주 야 4당 지도부도 주말과 휴일 광주로 총 출동해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 진보신당 윤난실 대표 등은 2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에서 민주당 일당독점을 해소하는 일은 광주 지방자치 발전뿐 아니라,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서대석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비민주 야 4당 대표들은 기자회견 뒤 서 후보와 함께 교회와 성당, 각종 체육대회 행사장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주말인 23일에는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민정기 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대규모 릴레이 유세를 펼쳤으며,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장은 주말과

휴일 1박2일 동안 광주에 머물러 지원 유세를 펼쳤다.

이 같은 각 정당의 사활을 건 총력전에 대해 무소속 김종식 후보는 성명을 내고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선거에 각 당 중앙당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당 후보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특히 공천과정에서 능력도 되지 않는 아이를 학급 반장 선거에 내보낸 민주당은 반성은 커녕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친인척을 동원해 반장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치 형태는 지역민들의 비난을 더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유권자 1대1 접촉을 통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김 후보는 주말엔 각 동네 노인정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고, 휴일엔 교회와 성당을 돌며 막판 지지를 부탁했다.

무소속 박금자 후보는 주말과 휴일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앙역 수지와 상무역에서 대규모 유세를 펼쳐 부동층 확보에 열을 올렸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구민이 진짜 주인 되는 희망 서구 건설’을 역설했다. 박 후보는 “지방의원 4선으로 항상 주민 곁에 있었으며, 주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정치부터 확고하고 훈련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권필기자 cki@kwangju.co.kr

F1 코리아 그랑프리

F1을 도운 사람들

“아이들에 글로벌 마인드 심어 줘” “지역민으로 행사 주인공 되고 파”



가족 자원봉사단 조영석씨

“아이에겐 글로벌 마인드를, 저는 국제행사 마케팅을 경험하기 위해 자원했어요”

F1(포뮬러 원) 코리아 그랑프리 예선전이 열린 23일, 메인스탠드 앞 간이안내소에서 분주히 관객들을 맞이하던 조영석(47·목포대 교수)씨는 “경기장 자체가 굉장히 낯선 환경이지만 지역에서 열리는 가장 큰 국제대회의 현장을 꼭 몸으로 겪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를 위해 아내 이해경(44)씨와 아들 조지훈(14)군 등 온 가족을 데리고 ‘가족’ 자원봉사단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조씨 가족은 연두색 자원봉사자 재킷을 걸치고 꾸준히 말을 걸어오는 관객들에게 반듯한 미소로 관람블럭과 실 곳 등을 안내하며 연신

즐거움 표정이었다.

조군은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두렵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이를 즐기러 온다는 것이 신기하다”며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여행을 다녀온 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내 이씨는 “국내 관객이 많은데 비해 외국 관객의 숫자는 적어 보인다”며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명실상부한 국제 행사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조씨는 “경력을 전공한 교수로서, 장차 F1 대회가 이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F1 대회를 계기로 전남도가 국제마케팅 경험을 축적하면 내년에는 본격적인 흑자 대회가 될 것 같다”고 조언도 내놓았다. 22일부터 사흘간 열린 F1 코리아 그랑프리에는 모두 8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가했다.

‘코스 오피셜’ 이승만씨

“환호합니다. 서킷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심장을 두드리는 굉음과 눈이 따라가지 못하는 스피드를 감상하고 있으니가요”

F1 서킷의 20개 포스트 중 16포스트(서킷 피니시 지점 전 마지막 코너)에서 코스 오피셜(Course Official)로 일하는 이승만(40·목포시청)씨는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몸소 체험하고, 앞으로 7년간 지역 주민으로서 행사의 주인이 되고 싶어 참여했다”고 말했다.

코스오피셜은 포스트(서킷 중간에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사람들이 대기하는 곳)에서 코스 상황을 살펴보고 드라이버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경기 중 항상 집중해서 코스를 지켜봐야 하는 자리다.

서킷 바로 앞에서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있는 사람들이 오피셜들이다.

이씨는 생소하지만 한 오피셜에 대해 “경기에 필요한 오피셜은 코스 오피셜과 블랙 오피셜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전국에서 모여든 오피셜만 800여명”이라고 자랑스러워 했다.

이씨는 서킷의 가장 가까운 포스



트에서 일을 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한국자동차경기연합에서 매주 주말 3개월에 걸쳐 이론과 실기 등을 교육받은 뒤 F1 대회가 시작되기 직전 코스오피셜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이씨는 “대기하는 16포스트는 피니시 지점 바로 앞쪽이라 승부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코너 구간”이라며 “가장 위험한 구간이기도 해 긴장감이 극에 달한다”고 털어놨다.

/입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핫이슈 준비 정치권 ‘시계 제로’

여야, 개헌·4대강·예산안 입장차 여전

여야가 집회·시위법(집시법)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 관련법 처리 방향에 합의했지만 개헌, 4대강 사업, 내년도 예산안을 담은 3대 쟁점이 남아있어 국정감사 이후 정치국회 후반기는 여전히 시계 제로 상태다.

모두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는 쟁점이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개헌 문제를 본격 논의하겠다”며 국회 개헌특위 연내 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정략적인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연내 개헌특위 출범은

불투명하다. 여기에 한나라당에는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개헌 시기 부적절론’이, 민주당에는 박지연 원내대표 등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 여야 모두 개헌을 둘러싸고 논쟁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4대강 사업은 국정감사를 거치며 여야간 대치가 더욱 격화됐다고 볼 수 있다. 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투표까지 요구하며 파상공세를 펼 테고, 이에 반해 여당의 방어막도 견고해질 전망이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 문제와도 직결된다.

민주당은 전체 4대강 예산 22조 2000억원 중 8조6000억원을 무상급

식, 반값 등록금 등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의 미세조정 가능성만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 한화, 태광그룹, C&G그룹에 맞춰진 검찰의 칼날이 정·관계로 향하며 사정(西正) 태풍이 불 경우 여야는 전·현 정권 책임론 공방을 비롯해 견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유보된 집시법 처리, SSM법 중 후(後)처리기로 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처리 시기를 놓고 여야가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는 연말까지 치열한 공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주장 홀룡... 일년 내내 관광객 유치 명소 만들어야”

한스 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



한스 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는 흥분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독일에 뉘르부르크링 서킷과 호켄하이 서킷이 있는데도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한국에서 관람하게 됐기 때문이다.

24일 F1 대회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 패독를 앞에서 만난 자이트 대사는 “코리아 그랑프리라는 내가 관람하는 첫 F1 경기”라며 “처음 왔는데 엄청난 규모를 갖춘 참 훌륭한 경주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독일에서는 젊은이들을 비롯, 중·장년들도 F1 대회에 열광한다”면서 “호켄하이어나 뉘르부르크링에서

대회가 열릴 때면 10만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그는 또 “F1 대회가 열리는 독일 뉘르부르크링과 호켄하이 지역은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며 열악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유명하다”면서 “전남지역도 F1 대회를 계기로 지역 발전 및 국내 자동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내외적 인지도 상승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이 직접 서킷에서 차를 몰아 볼 수 있는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관광객의 발길이 연중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경우 F1 대회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고의 레이서들과 자동차 브랜드를 통한 국제 마케팅이 최고의 방안”이라며 “서킷이 일년 내내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현대적인 자동차 박물관 건립, 차세대 F1드라이버를 위한 강좌 개설, 친환경 엔진 및 자동차, 특히 e-모빌리티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F1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F1 대회는 기업간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지인 중 한 명도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F1 경기의 투자자로서 방문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사진=김진수기자 jeans@

떡어야 해결된다. 여성전용 먹는 탈모제품의 특징

여성탈모, 무모, 이제 고민 끝!

그동안 남모르게 고민해오던 여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고 있어 화제이다. 여성의 탈모의 원인은 모낭의 영양결핍입니다. 여성의 탈모의 원인은 모낭위축입니다. 원인이 다르면 제품도 달라져야겠지요? 모근에 영양공급이 바로고 김아서 해결될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먹는 방법입니다.

머리카락이 굵어져서 빠짐이 체가 풍성해진다.

(홍신앤비고중 제9-5301호)

대히트 오래~오래~

신상품 룽~링

남자의 발기능력은 자기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소하고 빠르고, 힘이 없고, 남성의 3대 고민은 오래~오래~ 룽~링으로 개선하자. 자동으로 흔들어 주고 떨어주며 룽링은 소프트하고 무게감이 없고 반영구적이며 위생적으로 탁월하여 여성으로부터도 호감을 받습니다. 생노병사 불노장생 책을 드립니다.

본 제품은 의모기가 아닙니다

02-2068-4142 010-3518-8995
02-2068-4143 010-3611-8272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중·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28-0990, 010-8494-9484

2009~2010년 S대를 12명 합격시킨

일곡 국민학원, 동선 국민영재학원이 아심차게 펼치는

중3 대상 고1예비 특별반 4개월과정·강사진 8명(이수) (고등학교 입학 후 최우등생으로)

※ 개강 11월 3일 각 학원 1개반 모집 (영·수 I·II 후수강결정) (매주 화요일로 개강) (문의바랍니다.)

| 강사 | 언어 | 수학 | 영어 | 과학 | 국사 | |
|-----|---|---|---|---|---|--|
| 강사진 | 최복수 (서강대 대학원 전. 양영학원 서울대반 전. 대성학원 서울대반 전. 대성학원 서울대반 현. 양영학원 서울대반) | 강동구 (동국대 대학원 전. 대성학원 서울대반 현. 국민영재학원 논술팀장) | 주석진 (전. 문성고 전. 대성학원 서울대반 고난도 수 II N제) | 박현철 (전. 일동학원 전. 양영학원 서울대반 고난도 10-가·나·수 I) | 신경찬 (전. 양영학원 서울대반 과학 TEPS 다년간 지도 수능영어 및 TEPS) | 배철훈 (전. 대평고 전. 대성학원 서울대반 공통과학 및 화학 I·II 최고의 국사 수업) |
| | 정성환 (연세대 대학원 현. 대성학원 서울대반 현. 양영학원 서울대반) | 박영미 (국민학원 국민영재학원 국어 및 문학담당) | 양덕열 (연세대 경제학과(서울) 전. 서울두리대학원 현. 국민영재학원) | 이강영 (전. 서울철학학원 전. 일신페르마학원 현. 국민영재학원) | 조도현 (전남대 영문학 박사 전. 대성학원 서울대반 수능영어 및 TEPS) | 문승훈 (전. 양영학원 서울대반 현. 일동학원 최고의 국사 수업) |

최상위권을 위한 명학의 시작! 원하는 목표를 학당마다 놓아주세요!

| 시간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6:00~7:30 | | 수학 | 수학 | 언어/논술 | 수학 | 수학 | 4:30~6:00 언어나/논술 |
| 7:30~9:00 | | 영어 | 영어 | 과학/국사 | 영어 | 영어 | 6:00~7:30 과학/국사 |

| 수업시수 | 과목 | 시수 | 주별 수업 시수 | 월별 수업 시수 | 비고 |
|------|-------|----|--------------|----------------|---------------------|
| | 영어 | | 4 time (8시간) | 16 time (32시간) | 수능영어 + TEPS |
| | 수학 | | 4 time (8시간) | 16 time (32시간) | 10-가·나 + 수 I + 수 II |
| | 언어 | | 2 time (4시간) | 8 time (16시간) | 고등논술 + 수능문학 + 비문학 |
| | 과학/국사 | | 2 time (4시간) | 8 time (16시간) | 공통과학/국사 |

일곡동 국민학원 574-0101 일곡 롯데슈퍼 옆

동선동 국민영재학원 672-0483 동선 이마트 옆